장덕조 소설의 '사랑의 서사' 연구

- 『逆流속에서』를 중심으로 -

김윤서*

〈차 례〉

1. 머리말
2. 60년대 불륜코드와 새로운 정체성 찾기 - 일탈적 사랑
3. 욕망의 정시(正視)와 주체의 발견 - 낭만적 사랑
4. '가정' 이데올로기의 전유와 'Eros와 Philia'의 윤리 - 윤리적 사랑
5.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1960년대 신문연재소설의 주요 소재는 '사랑'이라는 점에 천착하여, 그간 사각지대에서 외면된 장덕조의 『逆流속에서』를 찾아 대중소설의 시의성을 바탕으로 한 '사랑의 서사'를 살펴보았다. 이는 근대화 과정에서 배태된 여성의 주체적 경험과 욕망, 당대의 윤리의식을 밀도 있게 모색하는 유용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장덕조는 1932년 <개벽>사에 입사, 기자가 된 것을 계기로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한 향토 출신의 여류작가이다. 30년대 대부분의 신문·잡지를 통해 다른 여성 작가들보다 두드러진 창작활동을 하였으며, 50~60년대 이르러서는 대중작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

* 경일대학교 강사

다. 그러나 대중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사에서 누락되고 소외된 작가이다.

『逆流속에서』는 60년 초 여성의 근대적 자각을 옹호하고 자본주의적 속물성과 봉건적 관습을 비판하고 있다. 남·녀 간 사랑의 관계를 특별한 것으로 부각하면서 60년대 불륜코드와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위한 인물들의 섹슈얼리티가 '일탈적 사랑'으로 나타난다. 『逆流속에서』의 사랑 방식의 한 형태인 '낭만적 사랑'은 인물들이 자신의 욕망과 현실을 정시(正視)하며 주체를 자각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된다. 장덕조 소설의 가치를 발견 할 수 있는 중요한 종착점은 '윤리성'의 탐구이다. 『逆流속에서』는 이러한 작가의 윤리의식이 다분히 내포되어, '가정' 이데올로기를 준거 기준으로 제시한다. 가정의 이탈과 복귀라는 '윤리적 사랑'의 봉합은 그들의 사랑이 'Eros'를 초월한 'Philia'의 관계 형성으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된다. 이는 사회·문화·정치적 분위기가 여성의 '교양화'를 요구했던 60년대 연예담론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逆流속에서』는 '사랑의 서사'을 통해 대중문학의 미학적 속성과 더불어 근저에 작용하는 '윤리의식' 및 평온하지 못한 사회의 조류에 치열하게 항거하는, 당대 '작가의 의식'을 조망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주제어: 역류, 정체성 찾기, 일탈적 사랑, 주체의 발견, 낭만적 사랑, 에로스, 필리아, 윤리적 사랑

1. 머리말

1960년대는 50년대의 황폐함과 무질서에서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는 시기였다.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혼란과 무질서를 극복하

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더불어 여성의 주체를 근대적 공간으로 '재영토화' 하는 내면의 의지가 표출되는 시기였다. 그러나 근대의 빛에 구현된 여성 담론이 각종 매체를 통한 노력의 일단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맺는 관계는 화해롭지 못했다. 자본주의 근대의 억압성에 대응하여 나름의 방식을 치열하게 모색해 나아갔지만 '왜곡된 자유와 일탈'이라는 부정적 가치관이 유교적 위계질서와 복합적으로 접합되기도 하였다. 특히 '사랑과 연애'의 담론은 근대적 각성의 계기가 되거나, 사회를 변혁하는 정치의 힘으로, 또는 자본주의적 속물성과 봉건적 관습을 비판하는 준거로 의미가 확장됨으로써 근대적 성찰의 계기를 일정하게 반영하였다.

1960년대 다각화된 매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여류 작가들의 활동은 주목할 만하다. 그중 대중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확보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사에서 소외되고 누락된 작가로 장덕조를 들 수 있다. 장덕조 소설에서 두드러진 것은 부부관계를 다룬 작품이 지배적으로 많다는 점[1]이다.

특히 60년대 초 「大邱每日新聞」에 연재된 신문소설 『逆流속에서』에 나타난 '사랑의 서사'는 당대의 사회적 풍속(정치・사회・경제・문화 등)과 유기적으로 교차하며 공론화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서사는 여성의 권리와 합리성과 평등을 동반한 자아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장덕조(張德祚, 1914~2003)는 이화여전 영문과를 중퇴한 뒤 1932년 8월 『第一線』에 단편 「저회(低徊)」로 등단하였다. 왕성한 창작열로 <碧梧桐 심은 뜻은>[2], <李朝의 女人들> 등의 역사소설

---

1) 이강언・조두섭, 「여성의 본능과 비극적 사랑」, 『대구・경북 근대문인 연구』, 태학사, 1999, p. 312.

2) 장덕조의 신문연재소설 가운데 대중의 정서와 소비성향에 부합하는 작품은 다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고,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도 6편에 달한다. 특히 영화 <다정도 병이련가>의 동남아 수출은 당시 국내 주요 일간지에서 주목할 만한 대단한 사건이었다. 이 6편 작품의 영화화 과정을 예

작가로서 뿐만 아니라, 친일작가[3], 종군작가, 향토작가로 알려진 여류소설가이다.[4] 속칭 순월마을이라 불리우는 경북 경산군 자인

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다정도 병이련가	연재, 신태양, 1954. 2~9, → 단행본, 세문사 / 1956 → 영화, 윤봉춘 감독, 1957.
②	장미는 슬프다	HLKA 방송소설 → 단행본, 희망사/ 1957 → 영화, 박상호 감독, 1958.
③	낙화암	연재, 동아일보, 1956. 7. 1~1957. 3. 19 → 단행본, 신태양사/ 1959 → 영화, 낙화암과 삼천궁녀, 이규환 감독, 1960.
④	영화마마	라디오드라마/ 1961 → 영화, 임권택 감독, 1964.
⑤	벽오동 심은 뜻은	연재, 한국일보, 1963. 8. 20~64. 9. 10 → 단행본, 삼성출판사/ 1964 → 영화, 이규웅 감독, 1964.
⑥	지하여자대학	연재, 중앙일보, 1968. 1. 1~12. 30 → 단행본, 국민문고사/ 1969 → 영화, 최무룡 감독, 1970.

3) 장덕조의 경우 대동아 전쟁 시기에 국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장르인 '방송소설'을 여러 번 발표하였다. 방송소설의 속성은 대중적인 교화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애국반 활동, 생활개조, 군국의 어머니를 특정 가족이라든가 마을에 한정해 그림으로써 일상생활에까지 침투한 식민화의 논리가 젠더와 관련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 발표 시기가 대체적으로 1940년 이후에 집중되어 있는 친일담론의 '서지 목록'은 아래와 같다.(김양선, 「일제 말기 여성작가들의 친일담론 연구」,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 장의 형성』, 2012, 소명출판, pp. 102-105참조)
장덕조

방송소설	「蓮花村」, 「雨後晴天」	『放送小說名作選』(朝鮮出版社, 1943)
방송소설	「再生」	『放送之友』(1944.2)
방송소설	「銃後의 꽃」	『放送之友』(1945.1)
수필	「出發하는 날」	『매일신보』(1943.3.7~10)
소설	「새로운 群像」	『매일신보』(1944.1.12~16)
소설	「行路」	『半島作家短篇集』(조선도서출판, 1944.5)
희곡	「노처녀」	『朝光』(1944.2)

4) 작품량에 대한 통계 결과는 여러 평자에게서 다르게 나오고 있으며, 120여 편의 단편소설과 90여 편의 장편소설의 편수를 추정(『조선일보』, 2003. 2. 18, 25면)하고 있다.

면 북사리 76번지에서 신문화·신문명을 가장 먼저 흡수한 개화인인 장재수(長在洙: 인동 장씨)의 딸로 태어나, 서울 배화여고보로 전학[5]을 가기까지 천재소녀라는 칭호를 받으며 자라난 그 마을 유일한 서울 유학생[6]이었다. 장덕조가 소설문학의 불모지이며 가부장적 제도가 뿌리 깊게 자리한 대구·경북 지역에서 여류작가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자리매김한 것은 1950년대부터이다. 전쟁 이후 급격하게 변한 한국적 현실과 이에서 비롯되는 이데올로기적 갈등양상이 대부분이던 당시에 육체나 성(性), 개인적 욕망의 인식을 다양한 입장에서 전개하였다.

근대화로 인해 여성의 영역에서 싹트고 있는 '자유', '주체적 열망'과 마주친 장덕조는 자유의지와 생명의 정열을 꿈꾸는 여성 타

'한국 문단사에 기록 될 최다 작품 저술가'(정연희)로 인정될 만큼 장덕조의 작품 흔적은 뚜렷하다. 먼저, 1937년 조선일보 출판사에서 간행된 『현대조선여류문학선집』에 수필 두 편이 뽑혔으며, 1938년 같은 출판부에서 편찬한 『현대조선문학전집 단편집』에는 장덕조의 「창백한 안개」가 이광수, 이태준, 김유정, 박태원, 이효석 등의 작가와 함께 수록되었다. 1960년대 을유문화사에서 펴낸 『한국역사소설전집』과 민중서관에서 출간한 『한국문학전집』에는 작품이 각각 한 권으로 편집되었으며 후자는 판을 거듭한 삼성당판 『한국문학전집 장덕조편』의 원본이 되기도 한다.

장덕조 소설에 대한 연구 성과로는 조 리, 「장덕조 소설 연구」(전북대학교 박사논문, 2007)/ 남금희, 「1950년대 장덕조 신문소설 연구 - (대구매일신문)을 중심으로」(『현대소설연구』 20, 2003)/ 최미진, 「1950년대 신문소설에 나타난 아프레 걸」(『대중서사연구』 18, 대중서사학회, 2007) / 최미진, 「1950년대 장덕조 소설에 나타난 연애와 결혼 - (多情도 病이련가)를 중심으로」(『현대문학이론학회』, 2009)/ 차희정, 「해방기 장덕조 소설에 나타난 여성성의 위장과 전유 - 잡지 게재 소설을 중심으로 -」, 『한중인문학연구』 35, 2012/ 김동윤, 『신문소설의 재조명』(예림기획, 2001) 등이 있다.

5) 당시 장덕조는 대구여고보(현 경북여고 전신)에서 일본인 교사 배척 동맹휴학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다(1927). 후에 광주학생운동의 선언문 초안을 장덕조가 작성한 사실이 일경의 추격으로 밝혀지자 장덕조는 퇴학을 당했다. 서울 배화여고에서(선교사가 세움) 장덕조의 이러한 사정을 알고 받아주어 마지막 일 년을 다녔다.

6) 이강언·조두섭, 앞의 책, p. 308.

자들의 새로운 인식에 대한 봉착과 향락적인 모던 풍속을 경계하는 자세를 취하며 신문연재소설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의식 변화와 자유로운 정신의 성장 등으로 전통적 가부장제 사회에 희생된 여성의 삶을 폭로하고 극복하는 길을 모색하였으나, 여성의 주체적 자리매김에 있어서는 한계를 보였다. 이는 현모양처의 가정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려는 전통여성인 동시에 잡지와 신문지면을 직업공간으로 삼아 신여성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던 작가의 대응 태도와 흡사한 면모이기도하다.

대구·경북의 향토 작가로 자리매김한 장덕조는 소설뿐 아니라 희곡, 수필 창작에도 심혈을 기울였으며, 다양한 장르와 매체를 넘나들었다. 또한 「평화신문」 기자, 「영남일보」 문화부장, 「대구매일신문」 문화부장으로 일하던 중 9·28수복과 1·4후퇴 등의 소용돌이를 거치는 가운데 종군작가단으로 활약하기도 했다.[7] 그러나 사회나 역사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신문연재소설이 통속적인 경향을 띤다는 비판과 함께 해방기 친일작가로서 여성성의 위장과 전유[8], '국가주의 동원문학'[9], '대중문학'이라는 냉담한 평가가 있었다.

---

7) 육군 종군작가단의 활약상을 보면 동·서부전선에 직접 종군하여 보고강연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문학 및 음악의 밤, 문인극 공연, 시국 강연회, 육군의 밤 방송, 시화전, 군가 작곡 작사 등 그 업적이 대단했다. (김병익, 『한국문단사』, 일지사, 1979, p. 204)

8) 차희정, 「해방기 장덕조 소설에 나타난 여성성의 위장과 전유 - 잡지 게재 소설을 중심으로 -」, 『한중인문학연구』 35, 2012.

9) 작가의 일제말기와 한국전쟁기 문학 활동은 국가주의에 협력한 문학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되고 있다. 일제말기 문학 활동에 대한 연구는 송민경의 「일제하 방송소설 연구」(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03)와 김양선의 「일제말기 여성작가들의 친일담론 연구」(『어문연구』 33-3, 한국어문연구회, 2005)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한국전쟁기 문학 활동은 신영덕의 『한국전쟁과 종군작가』(국학자료원, 2002), 박정애의 「동원되는 여성작가 - 한국전과 베트남전의 경우」(『여성문학연구』 10, 한국여성문학회, 2003), 김양선의 「반공주의의 전략적 수용과 여성 문단 - 한국전쟁기 여성문학을 중심으로」(『어문학』 101, 한국어문학회, 2008) 등에서 다루어졌다.

장덕조가 대중소설가로 위상을 확립한 것은 1950년대 『이조의 여인들』, 『여자 삼십대』, 『다정도 병이련가』, 『벽오동 심은 뜻은』, 『낙화암』, 『누가 죄인이냐』 등의 대중소설 창작에 힘을 기울이면서 부터이다.[10] 특히 신문매체를 통해 발표한 장편소설이 1950년대를 국한하더라도 10여 편이 상회한다. 당시 작가들의 신문연재소설의 특성은 가족 해체로 인한 여성의 다채로운 애정 갈등 변화와 사회 부패, 비리상 폭로, 전후 복구적 계몽, 참 민주주의의 갈망으로 전개 되어갔다. 장덕조의 신문연재소설도 예외는 아니었다. 작품 대부분은 전쟁으로 인한 가족 해체와 몰락, 파탄적 애정갈등, 축첩문제(「여인상」, 1954년), 다방이나 요정, 클럽(빠) 등을 경영하는 여자문제(「여자 삼십대」, 1953년), 계몽적 주제로 수렴되는 도덕성 회복의지의 문제(「만종이 운다」, 1958년), 여성의 주체성 자각과 불륜(「逆流속에서」, 1960년대) 등 대중소설의 친숙한 인물 군상으로 나타난다. 1950~60년대 신문연재물에서 가장 부각 되었던 대상은 미망인, 유부녀, 매춘부, 이혼녀, 미혼모 등 다양한 계층의 여성이다. 이들은 주인공 혹은 문제 인물로 등장하여 담론의 중심

---

10) 대중소설가로 위상을 확립했던 1950년대 신문매체를 통해 발표한 장편소설은 10편을 상회하는데, 지금까지 확인 가능한 작품은 다음과 같다. 「여자 삼십대」(『매일신문』, 1953), 「광풍」(『동아일보』, 1953~1954), 「여인상」(『매일신문』, 1954), 「허영의 풍속」(『경향신문』, 1955), 「정염의 강물」(『국제신문』, 1956), 「낙화암」(『동아일보』, 1956~1957), 「누가 죄인이냐」(『연합신문』, 1959), 「열대어」(『국제신문』, 1959~1960), 「逆流속에서」(『大邱每日新聞』, 1960)이다. 이들 중에서 연재 후 단행본으로 출간된 것은, 『여자 삼십대』(인화출판사, 1954), 『광풍』(인화출판사, 1954), 『낙화암』(신태양사, 1959), 『격랑』(신태양사, 1959) 등 4편 내외이다. (한원영, 『한국현대신문연재소설연구』 하, 국학자료원, 1999, pp. 1185-1259)
또한 장덕조가 해방 이후 한국전쟁 직전까지 발표한 소설들은 모두 8편이다. <창공(蒼空)>(『文化』, 1947.7)/ <함성(喊聲)>(『白民』, 1947.7)/ <저돌(猪突)>(『新天地』, 1949.9)/ <삼십년(三十年)>(『白民』, 1950.2)/ <저회(低徊)>(『연합신문』, 1949.1.3-02.23)/ <곤비(困憊)>(『국도신문』, 1947.8.15)/ <어떤 이혼소(離婚所)>(『주간서울』, 1949.9)/ <정(情)>(『부인경향』, 1950.6).

이 되었으며, 장덕조는 젠더 관념을 서사화 하면서 지역 작가로서 가장 많은 애정소설을 연재하였다. 작가의 신문연재소설은 남·녀 간의 애정이나 불륜을 소재로 한 통속 애정소설류와 역사소설류[11]로 크게 구분 할 수 있다.

장덕조의 신문연재물이 큰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당시 성, 계급, 지역, 교육의 측면에서 하위주체인 '여성' 담론을 '여성' 작가로서 신문매체와 공모하여 주도하였다는 점이다. 왜곡되고 소외된 하위주체 여성의 자유의지를 강조한 장덕조의 소설에 대한 냉담한 반응과 방대한 소설에 대한 접근은 아직 시작 단계에 놓여있다. 여성주의적 담론이 현학적(衒學的) 지위를 얻게 됨에 따라 다소 의미가 부여되기는 하였으나, 장덕조의 '대중성'에 대한 조명은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고는 장덕조의 애정소설 「逆流속에서」[12]를 중심으로 그 저변에 작용하는 '사랑의 서사'을 통해 여성 주체와 윤리성의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덕조 소설의 성·사랑·결혼의 서사가 1960년대 신문연재소설에 나타난 주요 소재이자 주제인 '사랑'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고가 장덕조의 '사랑의 서사'에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

11) 편의상 내용을 분류해 보면, 풍운을 다룬 작품으로 「낙화암」(백제사), 「천추국 깊은 밤에」(고려사), 「이조의 여인들」(이조사), 「춘풍추우」(英祖사)가 있으며, 중요한 역사인물을 그린 작품으로는 「광풍」(김시습), 「민 비」(閔妃), 「한양성의 달」(이방원) 등이 있다. 이 두 범주에 들어갈 수 없는 「벽오동 심은 뜻은」은 이조 하층 여인과 선비의 애환을 그린 작품이며 남·녀 인물들의 애정 갈등을 둘러싼 서사는 장덕조의 역사소설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2) 본고에서는 『大邱每日新聞』(1960. 5. 11~12. 31, 226회)에 연재된 원본을 텍스트로 삼으며, 이하 인용은 연재된 회수를 밝히기로 한다.

2. 60년대 불륜코드와 새로운 정체성 찾기 - 일탈적 사랑

장덕조에게 「逆流」는 평온하지 못한 이 사회의 조류를 말한다. 장덕조는 「逆流」를 통해 60년대 초 여성의 근대적 각성을 옹호하고 자본주의적 속물성과 봉건적 관습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逆流」에 뛰어들어 사회와 가정에 항거하는 이 소설의 주인공을 통하여 장차 닥쳐 올 조락기를 공포(恐怖)하여 저항을 거듭하는 모습을 시대의 풍속도 위에 부각[13]하고 있다.

대중소설에서 사랑의 서사는 '결혼'이라는 전통적인 윤리관 속에 잠재된 사랑과 성을 제도 밖으로 자유롭게 일탈시킴으로써 결혼 제도를 교란시키는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결혼 후의 서사는 '불륜의 담론'을 공론화하는 서사가 정절 헤게모니와 결합되어 전략적으로 선택된다. 특히 그들의 만남이 '불륜의 서사'로 진행된다면 육체성의 발현이 담보되기에 이들의 만남은 '은폐'되어야 한다.

'불륜의 서사'를 담은 육체성의 노출과 은폐는 1954년 『서울신문』에 연재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소설 「자유부인」에서도 드러난다. 「자유부인」에서 보여 준 일탈과 방종은 전후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 속에 야기된 억압 감정의 자연스러운 분출[14]로 이해될 수 있다. 1950년대 「자유부인」의 여성 인물들이 서구적 가치와 전통적 가치의 충돌, 물신화된 욕망을 바탕으로 근대적 주체의 일그러진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면, 1960년대 「逆流속에서」의 여성은 남성과의 사랑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기욕망을 응시하고 있다.

특히 유부녀들의 일탈은 1950년을 전후하여 신문소설에서 거의

---

13) '필자는 결혼생활 십년의 삼십대여인이 청춘 푸르려던 과거를 회상하고 장차닥쳐올 조락기를 공포(恐怖)하여 저항을 거듭하는 모습을 시대의 풍속도위에 부각해 보려는 것이다. 그는 참는것만이 여성의 미덕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大邱每日新聞」, 1960년 5월 9일자, 作者의 말)

14) 강진호, 『현대소설사와 근대성의 아포리아』, 소명출판, 2004, p. 45.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화소라고 할 수 있다.「자유부인」의 <오선영>과 「逆流속에서」의 <강선영>은 유부녀가 일탈하여 외간남자와 어울리다가 다시 남편을 찾아가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신문소설의 도식적인 요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15]

「逆流속에서」는 60년대 사회와 인간의 모습에 깊이 관여하는 여성 소설의 특징이 다분히 담겨져 있다. 낭만적 사랑의 환상에 몰아적으로 탐닉하여 맹목적 사랑의 자세를 취하다가 가부장제에 순응하는 현모양처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여성의 모습이 작품 곳곳에서 보여진다. 또한 성이나 기존 윤리를 파격적으로 이탈하는 여성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여 자신의 미모나 육체를 이용하여 남성을 유혹하는 전형적인 팜므 파탈이 재현되어 있다.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욕망을 찾아 행동하지만, 결말에 이르러서는 보수적 세계관과 윤리적 가치관을 탈피하지 못한 채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인다. 신문소설의 대중성을 다분히 반영하고 있는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타인과의 만남을 통한 '육체의 재발견'이다. 아울러 당대 사회적 관습이나 사상이 주요 요소로 등장하여 애정소설의 기대지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간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욕망과 도덕의 문제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도덕에 순응하는 입장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듯 속물성이 강화 된 가부장제의 모순을 담고 있는 「逆流속에서」는 당대 사회가 지배적으로 요구했던 사랑의 담론과는 다른 새로운 일탈적 섹슈얼리티를 대중들에게 제시함으로써 복합적인 정서를 혼융한 사랑의 서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즉 작중인물들이 자유연애를 모방하는 듯 보이지만 봉건적 질서에 대한 인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남·녀 간 애정을 인간성의 자연스러운 발현에 따른 통속적인 구성으로 취하고 있으며, 특히

15) 김동윤,『신문소설의 재조명』, 예림기획, 2001, pp. 121-123 참조.

외도의 문제(불륜코드)에 집중하면서 지배담론에 통합된다. 이들의 일탈된 연애는 근대적 각성의 계기가 되거나, 사회를 변혁하는 정치의 힘, 또는 자본주의적 속물성과 봉건적 관습을 비판하는 준거로 의미가 확장됨으로써 새로운 정체성 찾기를 반영하고 있다.

근대 이후에는 '사랑'이라는 개인적이고 낭만적인 요소가 결혼의 핵심이 되었다. 더불어 여성의 삶과 섹슈얼리티가 사회적·역사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규정되고 활용되는 정황을 포착하여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1950년을 전후한 한국사회가 자유연애를 표방하는 근대적 세계관을 서서히 표출하면서, 가부장적 결혼제도의 폭력성과 그 속에서 여성들이 감당해야 했던 질곡의 시간들을 서사화하는 현상들이 문학작품 속에 서서히 투영되었다. 즉 제도적 토대 위에서 당대 사회가 지배적으로 요구했던 사랑과는 다른 새로운 사랑 담론을 제시함으로써 지배이념이 강조하는 계몽의 논리를 의심하거나 전복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16] 따라서 근대 이후 소설 속에 묘사되는 여성들의 일탈은 사회문화적 현상들과 연루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태동하였다. 신여성에서 프롤레타리아 여성으로, 모던 걸과 아프레 걸에 이르기까지 그 섹슈얼리티의 변용을 거듭하였다. 신여성들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구습이라는 엄격한 규범을 향해 도전해야 했으며, 더욱이 강인한 유교적 규범이 가로막고 있는 가부장적 전통 속에서는 가일층 진보적이어야 했다. 당연한 귀결로 보다 혹독한 비판을 받으며 한국 여성들의 섹슈얼리티 문제는 거론되었으며, 소설 속의 여주인공들은 기생, 카페의 여급, 그림 모델, 대학 청강생 등으로 변모를 거듭하며 제 양상을 도출해 내었다.

직업 여성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점에서는 「逆流속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현숙'과 '복종'의 조용하고 봉건적인 도시 '대구'에서, 향촌동 마담族이라는 제재는 당대의 사회적·문화적 상황을

16) 최미진, 『1960년대 대중소설의 서사전략 연구』, 푸른사상, 2006, p. 15.

밀도있게 드러내며 그들의 삶에 공감대를 형성한다.

「逆流속에서」는 ① 연애 ② 위기 ③ 위기 해소 ④ 위기 ⑤ 이별 형태로 구성되며, 장덕조의 연애소설에서 외도의 이야기는 대체로 이러한 모식(模式)을 따른다.

그 구성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신문 연재의 제목과 연재 횟수

제목	연재 횟수
密 會	1회 ~ 31회
師母님	32회 ~ 48회
遠 雷	49회 ~ 69회
마담族	70회 ~ 90회
별은빛나도	91회 ~ 110회
女子의 마음	111회 ~ 124회
魔 漁	125회 ~ 142회
鎔鑛爐속에서	143회 ~ 160회
念 願	161회 ~ 173회
人間의 힘	174회 ~ 188회
傷 痕	189회 ~ 204회
悲 秋	205회 ~ 216회
검은 終點	217회 ~ 226회

위의 <표 1>에서 보듯이 서사의 구성이나 이야기 유형의 측면에서는 비교적 구체적인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물성격의 불분명성이나 리얼리티의 결여, 통속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 할 수 있다. 또한 대중들에게 친숙한 연애소설의 문법, 즉 작중인물의 설정 방식이나 작품 속에서 사랑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구애와 갈등, 오해와 용서 등에서 독자들의 기대지평을 충족시키는 기제가 폭넓게 작용하고 있다.

「逆流속에서」의 중심적 인물인 김문식은 S의과대학 해부학 교수로 설정되어 있으며, 강선영은 변호사의 아내로 지성과 미모를 두루 갖춘 여성으로서 남·녀 주인공의 이상적 결합을 향한 선남선녀로 설정되어있다.[17] 애정의 삼각관계는 연애소설의 구성적인 공식성이나, 「逆流속에서」는 삼각관계를 바탕으로 한 팽팽한 긴장관계보다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갈등과 번민을 만들어내고 이것들이 모여 격정과 열정을 촉발시켜 마침내는 불륜의 과정에 이르는 맹아적 형태가 소설 전면에 드러나 있다. 강선영과 김문식은 애욕과 사랑의 갈등 속에서 '마치 용광로 속에 던져진 두 조각 쇠뭉치처럼 그들 몸에 지닌 가능력을 불꽃같이 뿜으며 완전히 애련에 세례를 받은 몸'(154회)으로 열정적인 남·녀 관계로 획일화되어 있다. 즉 상대에 대한 위험한 몰입을 수반하는 일탈적 사랑의 요소를 동반하며, 급기야 죄의식의 표출을 통해 '용광로 속'에 던져지게 된다. 미셸 푸코는 '이러한 경제적·정치적 문제의 핵심에 성이 있다'[18]고 한 것처럼, 이들의 '일탈적 사랑'은 '순결한 마돈나' 혹은 '현모양처의 아내' 만을 요구하던 보수적인 당대 지배담론에서 새로운 여성 주체의 자각으로 볼 수 있다.

여주인공 강선영의 남편은 대구에서 훌륭하다고 떠받드는 법률가임에도 그가 지닌 성격적 결함과 외유로 인해 선영에게 '사랑'은 어찌 할 수 없는 반항정신처럼 운명으로 다가왔다. 급기야 남편의 친구인 김문식과와 불륜[19]을 저지르는 통속소설의 구성 속에

---

17) 연애소설에 작동하는 공식의 즐거움은 소망의 기제와 현실성의 기제에 의해 작동된다. 소망의 기제가 현실에서 이루기 힘든 독자의 소망이 명시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면, 현실성의 기제는 연애소설의 세계가 불확정적인 현실세계의 복잡다단한 형태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최미진, 앞의 책, pp. 45-46)

18) 미셸 푸코, 이규혁 역, 「앎의 의지」, 『性의 歷史』, 나남, 1993, p. 44.

19) 장덕조 애정소설에는 불륜모티프가 많다. 미망인 주인공이 시아버지의 비호를 받으며 외간남자와 정을 통하는 경우(「장미는 슬프다」, 1957), 기울

은폐되어야 할 '密會'가 진행된다.

> 불행한 부부였다.
> 선영은 옷을 갈아입고 양복장에 붙어있는 거울 앞에 섰다. 자기가 보기에도 아름다웠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그의 어깨에는 어찌 할 수 없는 반항정신(反抗淨神)이 걸머지워져있는 것이다.(3회)

작품에서 선영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진보적이다. 금기와 계율로 속박된 윤리나 관습을 벗어나 여주인공에게 삶의 동력을 제공해주는 성적 일탈을 구가시킴으로써 억눌린 욕망을 분출케 한다. 그들의 일탈적 사랑은 당대 마담족들에 대한 김문식의 생각을 통해, 결코 우발적이거나 유흥적이 아님을 역설하고 있다.

> 아무튼 기이한 세상이 되었다고 개탄하는 마음이었다. 남녀의 동등이 제창되고 여성이 남성에게 예속하는 성적 도구로 취급받던 사상이 거부를 당하게 되자 이 사회는 또한 그와 반대되는 풍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자 자신이 자기를 성적 도구화하려는 사상이다.
> 한편에서는 여자를 성적 충족을 위한 도구로 간직하는 것이 인간에게 대한 모독이라고 기염을 울리는 사상이 있으며 한편에서는 태연히 자기 몸을 스스로 도구화하여 이것을 금전과 교환하는 풍조가 유포되고 있는 것이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까, 여자대학생이 등록금을 위하여 돈 있는 늙은 남자에게 몸을 내던지는 일이 있고 여비서와 사장의 관계도 걸핏하면 선을 넘는다 한다.

어져 가는 친정의 가계를 살리기 위해 애정 없는 결혼을 선택하고 의학박사가 되어 돌라온 옛 애인과 불륜을 저지르는 불륜과 情死(「女人哀歌」, 1951) 등이 있다. 정신적 불륜에서 서로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헤어지는 사랑의 모습을 담은 애정소설(『누가 죄인이냐』, 「연합신문」, 57. 4~10, 1958년 단행본 출간)도 있고, 전후 혼란스러운 사회상에 물들지 않고 양심을 지키며 순수하게 살아가려는 앳된 여대생과 독신 교수와 겪는 삼각관계의 애정소설(『激浪』, 「경향신문」, 57. 12. 1~58. 5. 31.181회)도 있다. (남금희, 「1950년대 장덕조 신문소설 연구-『대구매일신문』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0, 2003, p. 316)

이 집에 나오는 여자들도 가장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가장 어려워해야 할 일을 예사롭게 아는지 몰랐다.
<그런 여자들인가>
김문식은 정말 삭막했다. 다만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로부터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선영이라 생각했다.(75회)

불륜의 선정성은 연재소설의 일회성(단절성)과 연속성의 기교 위에서 대중적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으며, 불륜의 주인공들은 신체적인 접촉을 통하여 더욱 서로를 연모하게 된다. 이들은 대중적 매체(편지, 전화)와 대중적 장소(다방, 커피숍, 호텔, 여관 등)에서 열정적 사랑을 확인한다. 특히 김문식의 편지는 강선영에게 사랑의 이데올로기를 향한 힘의 산물이며, 목숨을 건 일탈의 사랑을 결행하게 하는 동력이 된다.

장덕조 애정 소설의 무대는 대체로 '백화점', '극장', '호텔', '고급 술집', '클럽', '댄스홀' 등 도시적인 공간, 모던 생활을 상징하는 자본주의 공간으로 되어 있다. 작가가 「逆流속에서」를 연재하던 당시는 대구에 내려와 활동하던 시기이므로 대구의 중심지인 동인동, 향촌동, 교동 문화극장 주변 등지와 서울을 무대로 '사랑'과 '불륜'이 전개된다.

<표 2> 서술에 따른 공간의 이동

향촌동 → 중앙통 → 약전골목 → 동인동 → 동화사
대구 수성 K호텔 → 서울 남산의 N장 → 서울의 S호텔

이 시대 섹슈얼리티는 특히 남성중심적 관점을 강하게 드러낸다. 남성의 경우 외도 등의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키는 경우에도 생물학적 특징이나 사랑의 충동으로 이해되는 반면, 여성에게는 유교적 윤리의식과 순결을 강요하며 외도를 한 경우 가부장적 질서라는 명목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강선영과 혼외 관계에 있는 김문식의 경우

에도, 그의 고매한 인격과 낭만적 사랑 등으로 강선영과의 외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치부하며 너그럽게 용서된다. 그러나 강선영은 한 변호사(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갖은 수모를 겪는다.

> 남자의 외도는 지나간 날의 한가닥 이력으로 끝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발달한일이건 여자의 탈선은 그 일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48회)

'일탈적 사랑'으로 풀어내는 '불륜' 모티브는 남성(김문식)과 달리 여성(강선영)에게 있어 현실 도피적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기 파멸로 치닫는 선정적이고 도식적인 통속소설의 한계에 머물게 된다.

현대성의 원리를 내세우는 엔소니 기든스[20]는 현대 사회와 전통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내부-준거적 체계(internally referent system)를 제시한다. 즉, 이전의 관습이나 전통에 의한 행동들이 이제는 사회 체계의 내적 논리로 흡수되어 실행된다는 것인데, 이전의 성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자연의 섭리로 여겨졌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의 선택과 결정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현상 등을 설명한다. 즉 순수한 관계, 섹슈얼리티, 합류적 사랑 등의 개념이 타자의 개별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며, 평등한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든스는 순수한 관계를 지향하는 사회일수록 개인은 세습이 아닌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러한 불확실성은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 존재감을 확인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역설한다.

이는 「逆流속에서」도 볼 수 있다. '일탈적 사랑'의 충족을 위해 김문식과 강선영은 '용광로' 같은 열정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관습이나 전통에 의해 타자와의 관계를 설정하던 남성(김

---

20) 엔소니 기든스, 배은경 · 황정미 역, 『현대 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새물결, 2000, pp. 14-16 참조.

문식)의 입장보다는 소외나 유폐 등 억압 구조 속에 갇힌 여성(강선영)에게 더 많은 행동강령을 요구하게 된다.

열정적 사랑은 방해 요소나 장애에 부딪치면 감수성이 탁월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 점에서, 김문식에게 강선영을 향한 열정의 강도를 더하는 존재는 당시 '아프레 걸'[21]의 전형적인 여성인 윤마담(향촌동 술집 마담)이다. 일명 '마담족'이라 불리우는 '윤마담'의 불안한 생활은 퇴폐와 정신적 고민, 방황을 통해 지배 질서의 윤리와 배치되는 억압적 윤리의 형태를 표출하고 있다. 윤마담에게 '육체'는 최대의 상징 자본으로 물신화의 도착성을 내포한 욕망의 기조(基調)이다. 부도덕한 열정을 지닌 윤마담은 김문식의 냉소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광기적 집착으로 끝없는 욕망을 추구한다. 파괴성을 간직한 열정적 사랑으로 김문식으로부터 자존감 상실과 냉대의 모멸을 받은 윤마담은 마침내 사랑의 좌절로 히스테리적[22] 태도를 보인다. 이는 60년대 불안한 '逆流'의 한 조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3. 욕망의 정시(正視)와 주체의 발견 - 낭만적 사랑

낭만적 사랑은 열정적 사랑 이후에 등장한 구성물로서 자본주의적 생활양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60년대 여성소설의 특징

---

21) 1950년대 담론으로 조망 된 '아프레 걸'은 '아프레게르'에서 파생된 말로 '구질서에 반항하고 방황하는 젊은 세대' 혹은 '모라리티의 여성'을 일컬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아프레 걸 혹은 아프레로 명명한 여성들 사이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프레 걸은 특정한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인가 하면 여성의 부정적인 일면을 강조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22) 프로이트에 의하면 히스테리 증상은 가장 은밀하고 억압된 소망의 표현으로 가부장제 사고에게 말을 건네는 여성의 담론이다. (임옥희 외,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이연, 2003, p. 103)

중 하나는 '낭만적 사랑'이라 할 수 있으며[23] 이 시기 대부분의 여성 작가의 소설에는 '사랑'이 이야기의 중심에 놓여 있다. 낭만적 사랑이 일상의 현실로 실현됨으로써 여성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연애 대상을 선택하고, 그와 사랑하며, 결혼함으로써 근대적 주체로서의 체험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24] 즉 애정소설의 낭만적 환상은 경제 생산자인 남성이 자신을 편안하게 해 줄 적합한 배우자를 모색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낭만적 사랑이란 개인적이고 사적인 감정을 통한 사회적인 것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25]

근대적 사랑의 코드로 무장한 신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사랑과 연애, 결혼이라는 주제를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한 시기는 일제강점기이다. 신여성들은 근대화의 자각으로 자유연애를 강조하면서 사랑과 결혼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보여주었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결혼이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즉 가부장적 전제나 제도를 넘어서려는 근대적 사랑의 유형을 개인과 개인의 만남을 중요시하는 '낭만적 사랑'의 요소로 기대하게 되었다.

낭만적 사랑의 담론이 대중들에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그들의 기대지평을 담기 시작한 것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1960년대에 이르러서였다. 낭만적 사랑은 전근대적인 계층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만남의 양식이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여성의 열악한 지위에 대한 자각과 뚜렷한 정체성을 획득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랑의 담론은 사회와 역사에 따라

---

23) 60년대 여성작가 중 한말숙, 손소희, 임옥인, 정연희, 한무숙, 강신재 등 많은 여성작가들이 낭만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핵심적인 창작의 모티브로 삼았다.

24) 송인화, 「1960년대 연애서사와 여성주체 - 정연희 <석녀>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25, 2008.4. p. 168.

25) 제크린 살스비, 박찬길 역, 『낭만적 사랑과 사회』(민음사, 1985, pp. 223-239 참조)

구성되는 문화적 구성체이다. 성, 연애, 결혼을 포함하는 사랑의서사는 경제, 문화, 정치적 맥락 속에서 담론들의 긴장과 갈등 속에서 생산되고 유포된다. 이러한 점에서 낭만적 사랑의 담론은 근대적 사랑의 뚜렷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낭만적 사랑은 결혼 이전에만 허용되는 자유로운 사랑의 방식이다. 낭만적 사랑의 본질은 결혼 후에는 대부분 무화되기 때문에 담론 자체는 관념적이며 이상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표면화시킨다.

> 가정이라는 소우주에 갇혀 시시포스의 노동을 무의미하게 반복해야 하는 여성들은 삶의 결핍을 채울 수 없었다. 다른 유로를 찾지 못한 여성들은 낭만적 사랑이라는 탈출구로 가정을 떠나기로 했다. 그것은 가부장제의 보이지 않는 억압에 대한 희미한 반항이었을 것이다.[26](밑줄 - 인용자)

> 근대 여성문학의 특성과 그 시대적 영향과의 관계를 변증법적으로 읽어 낸 위의 글에서도 당대의 처한 현실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도피'였다. 60년대 여성소설에서 등장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정면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사랑, 종교, 운명론적 수용 등의 양상으로 현실에 대응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매몰시키는 소외된 공간에서 탈출하는 방법으로 남편을 배반하고, 사랑에 빠진 새로운 남자를 기꺼이 따라 나서며 '낭만적 사랑'이라는 형태를 띤 무모한 도전을 반복적으로 행한다. 또한 여성 인물들의 성의식은 정절과 부덕을 겸비한 현모양처의 통념과는 거리가 멀다. 가부장제의 완고한 편견에 저항하는 개인화된 주체의식과 욕망을 자각하게 된다.[27]

---

26) 한국문학연구회,『페미니즘과 소설비평』현대편, 한길사, 1997, p. 21.

27) 현대사회의 남성지배 구조는 한편으로는 국가적, 기업적 통제를 통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낭만적 사랑, 남·녀 간의 성과 애정관계, 부부 중심의 핵가족 제도 등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개개인의 삶에 침투하여 여성의 삶을 규제하여 왔으며, 여성의 심리상태를 지배하여 왔다고 본다. 영혼의 만남을 가정하는 낭만적 사랑이란 실제적으로는 현실화되기 어려웠다.

(밑줄-인용자)

그는 혼자 현관문을 열고 나가고 제 손으로 그 문을 닫았다. 저의 집 현관문 닫기는 소리가 차단기(遮斷機)처럼 이전의 강선영여사와 앞으로의 강선영여사를 가로막아 버리는 것 같았다.

명망있는 변호사의 재치있는 아내로서의 명예를 선영은 이렇게 하여 스스로 벗어 던졌다.(147회)

선영은 가정에서는 이룰 수 없는 '낭만적 사랑'을 가정 밖의 절대적이고 열정적이며 도피적인 사랑의 형태로 실현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는 가부장제의 완고한 편견에 대한 저항의 한 방식이며, 근대의식과 더불어 유포된 개인들의 자의식의 강화라고 볼 수 있다. 선영의 자의식이 선명하게 드러나자 성적 욕망에도 자연스럽게 눈뜨게 되었으며, '낭만적 사랑'의 이름으로 억압적 규범에 저항하며 애정의 도피 행위를 하게 된다.

또한 '낭만적 사랑'의 전개가 보여지는 과정에서 남성중심적 질서에 도전하고 윤리적 금기를 위반하는 주체적인 여성의식을 보여준다. 즉 오이디푸스적 권위[28]를 해체하고 '금기의 사랑'을 '낭만

사랑이란 가변적이며 구체적으로는 확보되는 물질이 아니다. 여성들은 더 이상 그러한 상태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며 그러므로 그들의 저항은 경제적, 법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자신의 체험을 박탈당하고 스스로를 규정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한 더 근본적인 항거의 몸부림이었다.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1988, p. 19)

28) 가타리는 오디푸스 콤플렉스가 자본주의 사회의 억압구조와 연합한다고 보았다. 「逆流속에서」의 배경이 되는 1960년대는 산업화·근대화에 따라 경제구조와 가족 형태가 변화되고, 서구 대중문화가 유입되면서 '남성다움'에 대한 재규정의 시각이 요구된다. '거칠음', '지배'의 성격이나 가치관보다는 '능력있고 책임감 있는 남성', '인기있는 남성'이 되고자 애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초도로우는 남성들의 불안한 정체감에서 빚어지는 문화 심리적 차원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조혜정, 위의 책, pp. 250-251 참조) 본고에서 다루게 될 '오디푸스 콤플렉스'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서 기술하는 '아이가 자신의 부모에 대해 느끼는 한 부류의 감정'과

적 사랑'으로 치환시킴으로써 당대의 상황에 지배되지 않은 이들의 욕망을 작품 속에서 투사하고 있다.

> 누가 강요한대도 되어질 일이 아니다. 애정의 신비에 대해서는 범인으로서 측량을 할 수가 없는 것인지도 몰랐다.(2회)

직진(直進)하는 힘이 가장 강하다는 물리학(物理學)의 자각을 깨달으며 김문식은 거의 날마다 선영에게 만나자는 전화를 걸고 그의 집으로 찾아오기도 한다. 김문식은 수려한 외모와 경제력, 순수한 열정 등을 두루 갖춘 남성 주인공으로 설정 되어 '사랑의 낭만성'에 대한 독자들의 기대 지평을 넓혀준다. 애정소설이 갖는 삼각관계의 복잡한 긴장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은 장덕조 소설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더욱이 금기적 욕망에 대한 사회규범의 비판적 시선은 외면 한 채 감정과잉으로 선영에 대한 애정을 내면화하는 점은 이 소설의 흡인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위험사상? 글세요. 그렇지만 난 연애란 미쳐야만 한다는 생각을 버릴수가 없어요 남자가 미치거나 여자가 미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둘다 미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일을 추진시킬 수 있는 강한 힘이 발생하고 그걸로 해서 사랑의 성공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3회)

> '중년의 초조'
> 그런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천성과 진심을 누르고 몇十년을 살아오는 동안 김교수의 가슴속에도 미흡(未洽)과 갈등이 쌓이고 쌓여 자기 생활에 대하여 염증을 느끼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지금 어떤 변화(變化)를 바라고 있다. 극히 조심스러우나마 그의 앞에 새로운

는 다른 개념인 문화, 심리적 차원에서 '오디푸스적 권위'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일정한 차이가 있다.

인생이 열리기를 희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현재생활에 대하여 파괴(破壞)와 부정(否定)을 짐작한다.
(8회 - 밑줄: 인용자)

'파괴와 부정'을 짐작하며 가부장적 권위나 가장의식을 남편의 자질로 생각하는 김교수의 내면과는 달리 선영은 '동정'을 가지고 김교수를 관찰했다. 보수적 성향을 가진 선영은 점점 친밀해지는 김교수와의 만남이 '자기위로'를 겸한 '심심풀이'에 불과하다고 자위했다. 그러나 선영이 기대했던 '낭만적 사랑'에의 실천(사랑하는 남자를 향해 집을 나서는 것)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선택이었으며 '낭만적 사랑'에 대한 남성들의 냉소를 부추기는 한계점을 갖고 있었다.

서구 산물인 낭만적 사랑이 전통 유교문화에 따른 희생과 순종에서 여성을 자유롭게 하는 '근대의 빛'으로 볼 때, 「逆流속에서」에 나타난 등장인물들의 '낭만적 사랑'은 여성의 자아인식과 주체의 형성을 탐색하는 주요 통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逆流속에서」의 낭만적 사랑은 자본주의적 근대의 중요한 표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낭만적 사랑을 통해 가부장적 질서와 자본주의의 제도의 모순을 응시하며 전근대성과 근대성의 착종 및 혼성의 시대를 재현하며 그것의 완고한 경계를 분열시킨다. 이러한 균열의 지점을 통해 다양한 윤리적 명목하에 억압되었던 여성의 성적 욕망과 육체가 새로운 의미로 복원이 되며 남근적인 오이디푸스 규율이 해체되는 징후를 보여준다.

동시기 여성소설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강신재, 한무숙 등의 작품에서도 여성들의 성적 욕망과 경험을 드러내며 남성중심적 세계의 폭력성에 대한 여성 주체의 저항적인 목소리가 표현된다.[29]

---

29) 송인화, 「1960년대 여성소설과 '낭만적 사랑'의 의미」, 『여성문학연구』 12, 한국문학여성학회, 2004, 6. 참조

다양한 함축과 맥락의 논의 속에 있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루만은 두 가지의 차원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 정서적 끌림으로서, 이를 감정적 실체로서의 사랑이라 할 수 있다.[30] 후자는 감정적 실체로서의 사랑에 대한 표현과 규제의 특수한 방식으로서 시대나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이를 사회적 코드로서의 사랑이라 할 수 있다. 루만은 사랑을 이상화하고 신비화하는 작가들의 표현은 사랑의 주체와 관념을 즉흥적으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 추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술하는 형식을 취한다[31]고 지적했다.

「逆流속에서」에 내재된 '낭만적 사랑'은 특수한 성의 규율과 감정의 결과물로서 후자의 입장에서 조망 해 볼 수 있다. 즉 감정적 실체로서 사랑의 범주 속에 있던 선영과 문식은 자신들의 욕망과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욕망의 정시(正視)에 이른다. 또한 선영의 주체적 자각은 단순한 남녀 관계의 끌림이 아니라 자기 규율의 기제를 통해 재생산 되어야 할 금기요 가변적인 코드의 사랑 형태라고 할 수 있다.

---

30) 중세 이후 유럽에서 형성되어 온 사랑의 역사에 관해서는 특히 루만의 논의가 상세하다. 각각의 특성을 개괄 해 보면, 1)긍정적 사랑: 쾌락과 정신성을 분리하여 대상과 사랑을 이상화시키는 형태의 사랑이며, 중세 연애시에서 표현되는 귀부인에 대한 기사의 사랑을 원형으로 한다. 기든스는 이를 숭고한 사랑이라 칭하기도 했다. 2)열정적 사랑: 궁정적 사랑에 의해 부정되었던 쾌락과 관능을 수용했지만 결혼과는 분리된 채로 존재했으며, 프랑스 고전주의 시대의 연애소설에서 표현되고 있는 귀족들의 혼외정사를 원형으로 한다. 3)낭만적 사랑: 성과 결혼을 사랑 아래 통합시킴으로써 열정적 사랑이 지닌 이중성과 역설을 넘어선 것으로, 사랑한다는 사실 자체가 사랑의 정당화의 기제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자기 준거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서영채, 『사랑의 문법』, 민음사, 2004, pp. 15-16)

31) Niklas Luhmann, 정성훈 외 역, 『열정으로서의 사랑』, 새물결, 2009, pp. 50-57 참조.

4. '가정' 이데올로기의 전유와 'Eros와 Philia'의 윤리 - 윤리적 사랑

연애담론에 윤리적 명분을 제공하는 것은 '가정'이다. 순결[32]과 절제의 윤리성이 내부동력으로 규정되는 '가정'은 여성에게 안정과 평안, 도덕적 응징 등이 강화되는 규율의 공간이다. 동시에 '가정'은 순결하고 순종적이고 희생적인 아내를 이상적인 이미지로 절대화하면서 60년대 여성억압의 중심기제가 된다.

> 貞淑하다는 것과 美德
>
> 정숙하다는 것 — 이것이 옛날부터 우리나라 여자의 미덕이라고 생각해져 왔습니다. 글자대로 해석해서 절개가 곧고 마음이 맑다는 뜻입니다. 절개가 곧다는 것은 행실이 바르고 남편한테 정성과 절개를 다한다는 뜻입니다. … (중략) …
>
> 紫楡가 지나치면 傍腫이 된다
>
> 요새 와서 서양 물들을 먹어 가지고 여자 쪽에서 남녀 동등을 부르짖어서 남자를 누르려고 드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것이 지나치면 방종에 흘러서 가정 풍파가 잦아지고, 마침내는 툭하면 별거생활, 이혼소송을 하고 부부생활에 파탄을 가져오게 됩니다. …(중략)… 사람은 정신적으로 아름다워야 육체적으로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네 여인들이 청초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보이는 것은 그 정신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결단코 내대고, 떠들어 대고, 남편을 누르려 들지 않고 다소곳하게 조용히 자기의 본분만 지키면서, 그러나 총명과 슬기로움으로 남편을 컨트롤하고 부부생활의 단란을 도모하는 이런 아름다움을 우리네 여성들은 가지고 왔습니다. … (중략) … 숨은 내조자로서 모든 공을 남편한테 내맡기고 다소곳하게 살아 온 것이 우리나라 여성들의 아름

32) 1960년대 한국사회에서는 여성이 타인에 의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순결을 잃는 경우에라도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가혹했다. 순결성 상실의 책임을 여성의 불철저한 순결의식에 두었기 때문이다. 전광문, 『고교생을 위한 순결교육』, 동구문화사, 1971, p. 103.

다운 점이었습니다.[33] (밑줄 - 인용자)

위의 잡지에서도 드러나듯이, 근대 대중 매체는 여성들에게 어머니와 아내라는 점을 강조[34]하며 가정주부로서의 덕목을 독려했다. 또한 근대화가 지향하는 '여성으로서의 온순한 미(美)와 모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각종 여성지[35]를 통해 거듭 게재하며 강조했다. 이는 연애소설의 욕망을 서사화하는 장덕조의 소설[36] 『逆流속에서』의 핵심적 인물인 선영의 방향 설정을 가름하는 또 다른 준거 기준을 제시한다.

『逆流속에서』에 나타난 자녀양육, 내조, 가정관리 등 '가정'을 둘러 싼 담론은 가부장적 질서와 체계를 크게 이탈하지 못하고 있다. 작가는 모성 = 여성성 = 희생의 연결로, 보살핌과 베풂의 모성

33) 趙容萬, 「우리 女性의 아름다움」, 『가정생활』, 1962.7, pp. 6-17.

34) 기혼 여성에게 정절은 미혼 여성의 순결의 지속형으로서 가정을 일구어 내는 기본 조건이자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덕목이기도 하다.

35) 『가정생활』, 『여상』, 『여원』 등의 여성지는 '교양과 지식'을 여성 독자층에게 보급하겠다는 목표로 창간된 1960년대 대표적인 대중 여성지이다. 『보건 타임즈』는 『가정생활』이 1960년 1월 유한양행이 발행한 가정교양 정보지로서, 1969년 1월부터는 '건강의 벗'으로 제호를 변경하여 현재까지 발간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보건 타임즈』, 2010, 7. 28) 『동아일보』는 『여상』은 '62년 11월 신태양사에서 창간된 여성지로서, 여성들의 교양과 지적취미를 주기 위한 여성교양잡지'라고 소개했다.(『동아일보』, 1962, 8. 15) 그리고 『여원』 또한 창간사에서 '모든 여성들의 지적 향상을 꾀함과 아울러 부드럽고 향기로운 정서를 부어 드리며, 새로운 시대사조를 소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간되었다고 밝히고 있다.(창간사, 「여성의 문화의식 향상을 위하여」, 『여원』, 1955, 10. 10) 한편 이 시기 여성잡지로 『주부생활』, 『여성동아』가 각각 1965년, 1967년에 창간되었으나 이들 잡지는 60년대의 '교양과 지식'의 성격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다.

36) 장덕조의 글쓰기는 가정소설에서 시작되며 그 이전에 발표한 연애소설들도 결국 가정소설에 고착된다. 그녀의 가정소설에서는 항상 온전하고 조화로운 가정을 지향하고 있으며 재혼이나 미혼모, 독신, 축첩 등 여타의 혼인 형태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 리, 「장덕조 소설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2007, p. 87)

을 충분히 실천하지 못하는 선영에게 끊임없이 번민하게 한다. 선영과 문식은 금기와 계율을 이탈했으나 가정의 울타리를 허물지 않은 채, 다만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거인으로서의 '가족'의 모습을 유지 할 뿐이다. 또한 강문식은 향촌동 진골목을 드나들면서 그곳에 있는 마담족들을 '불량자'로 간주한다.[37]

장덕조는 다작에도 불구하고 논의 된 작품이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작품이 안이성 등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중, '모성'[38], '가정', '부부'를 다룬 대표적 작품으로는 「어머니와 딸」, 「자장가」, 「창백한 안개」, 「부부도」, 「여자의 마음」 등이 있으며, 대체적으로 참담하고 혼란스러운 여성 운명을 부각함으로써 여류소설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장덕조 소설의 가치를 발견 할 수 있는 연구 대상 가운데 하나는 '윤리성'의 탐구이다. 실제로 작가는 '현숙한 아내', '착한 어머니'란 인상을 심어줄 정도로 풍설과 시비와 거리가 먼[39] 윤리적 사상이 투철한 여류문인이었다. 이러한 작가의 당대 여성들에 대

---

37) 이러한 배경에는 작가의 윤리의식과 더불어 당시 근대화와 민족주의의 결합으로 특화된 '청신' 즉 깨끗함에 대한 강박이 전 국민에게 전파된 영향이 크다. 1960년대 '청신'은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강력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사회문란', '가정파탄', '부패'가 이전시대의 악덕으로 판정되고 이들을 '청신'하게 교정하는 방법으로 '축첩 공무원 해임', '댄스홀 규제' 등의 사회규범이 만들어졌다. 이어 가족윤리를 중요하게 다룬 신민법이 1960년대 벽두부터 시행되었다.

38) 장덕조의 일제말기 일본어 소설과 해방 후 소설에 나타난 모성의 모습은 '친일' 담론을 적극적으로 내면화 하고 있다. 비교적 서사적 완성도가 높은 <행로>(조선도서 출판 주식회사 편(1944), 노상래 역, 『반도작가단편선』, 제이앤씨, 2008)에서는 제국을 위해 총후의 표상이 되겠다고 재생을 다짐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군국주의 모성 담론을 구체적 서사로 보여준다. 또한 잡지 게재소설 <蒼空>(『문화』, 1947.7), <喊聲>(『백민』, 1947. 6/7), <猪突>(『신천지』, 1949, 9), <三十年>(『백민』, 1950, 2)에서도 여성성의 모습이 '어머니', '모성'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39) 「女流藝術家의 結婚秘話」(『女性』, 1938. 2), 李善熙의 「동무 張德祚」(『女性』, 1938 9), 蔡萬植의「張德祚女史의 進境」(『朝光』5-3, 1939) 등 참조.

한 애정과 관심은 다양한 매체와 장르를 넘나들며 새로운 윤리성의 탐구와 개척[40]에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성취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변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도덕성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안일성과 각종 잡지의 전통적, 보수적 성향[41]에 호응한 윤리적 회귀의 작품성향으로 볼 때 작가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여성주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逆流속에서』에서도 그 아쉬움이 나타난다.

> 그는 아내의 손을존중한다. 이여사는 현모양처였다.
>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좀 더 잘살아보려고 손길이 거칠어지도록 일을 하는 여인이다. 그러므로 김문식교수도 그같은 아내를 존중하고 가엽게 여길 의무가 있었다. (22회)

작가는 '손마디가 불그러지고 손톱이 이지러진' 아내의 손에 대

---

40) '무엇보다도 이 작가의 특색이라 한다면, 작품세계에 나타난 의지력이라 할 수 있다. 이 작가의 초기 작품에서부터 일관된 주인공들의 의지력은 다른 남성작가라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의지력이다. 그것은 단지 의지력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생활을 개척하기 위한 새로운 윤리성의 탐구라고도 할 수 있다'. (김영덕, 「현대여류작가론」, 서정주 외 5인 편, 『현대작가론』, 형설출판사, 1979, p. 424)

41) 여걸은 우선 여성다워야 하는 것이 첫째 조건이요, 남달리 특이한 환경이 아니라, 평범한 환경에서 꾸준한 노력과 성실한 태도로서 남보다 뛰어난 재주와 지혜로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둘째 조건이고, 기적(奇蹟)과 같은 사업에 초조하지 말고 자기를 앞에 내 세우려는 허영(虛榮)을 버리는 것이 그 셋째 조건이다. 그리고 남녀 동등의 민주사회에서는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여자가 대신한다는 그 자체로서는 여걸이 될 수 없다. 여자 장관이라고, 여자 국회의원이라고, 여자 총장이라고 여자 사업가라고만 여걸이 아니다. 이와 같은 일을 남자보다 훨씬 뛰어나게 해야 걸출한 여성이 되는 것이다. 걸인(傑人)이란, 괴인(怪人)이나, 기인(奇人)이 아니다. 재능이 남보다 뛰어난 보편적인 인간이다. 여걸의 개념도 여기에 준해야 함은 물론이어니와 여자라는 대전제가 필수의 조건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張德順, 「傑人이기 전에 먼저 女性이어야」, 『여상』, 1963. 1, p. 215, 밑줄-인용자)

해 연민과 동정을 갖고 교훈적인 태도로 접근하고 있다. 독자의 내면뿐아니라 가장 친밀하고 존중감을 가져야 할 작품 속 등장인물인 김문식 교수(주인공)의 내면에도 파문을 던졌다.

장덕조는 1950년대부터 대중소설가로 위상을 확립하면서, '현실의식'과 '자의식'의 문제를 부각하는 등 다양한 작품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대중소설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은 사회적 통념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했다. 이후 1960년대 문학에서는 각양각색의 다양성을 지니며 과거 어느 때보다도 대담한 표현으로 변화 양상을 보여주었으나 '현숙'과 '복종'의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

> <현숙>과 <복종>은 특히 이지방 어버이들의 변함없는 가르침이었다. 현숙이라든지 복종이라든지 그바ㄲ에(그밖에) 모든 구시대적인 부도(婦道)에 속하는 목거리(목걸이)를 목에 걸지않고는 용납이 되지않을 이지방 여성으로 그목거리(목걸이)를 벗어던질 때 갈곳 없는 이단자(異端者)가 되어야 한다.
> (4회, ( )- 인용자)

> 잘못을 회개하는 의미로 더좋은아내, 더좋은어머니가되면되지않어?
> (189회 - 밑줄: 인용자)

그 목걸이를 벗어버리고 반항한 여성들은 '상하고', '쓸어지고', '피투성이'가 되는 것이 이지방의 실정이었다. 따라서 사랑을 위해 선영이 갈등하는 치열한 내면의 고투는 '윤리' 혹은 '도덕'이라는 규범과 제도에 대한 주체적 자각이며 저항이다. 특히 자식과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현모와 양처의 모습이라는 선영의 신념을 크게 벗어나질 못하고 있으며 아이가 열병을 앓는 동안 갈등과 반성 끝에 강인한 현모의 모습으로 변모한다. 연애담론에 윤리적 명분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것이 '가정'이며, 60년대 윤리적 명분을 규율하는 가정은 결혼과 가족 관계를 규율하는 절대 가치로까지 등극한다. 특히 60년대 연애담론은 여성의 성과 사회적 위치

를 남성보다 열등한 것으로 배치하는 보수적 차별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 여성의 성과 사랑은 남편에게 하위담론으로 전락하고, 부부간의 정서적 교감의 문제는 주변화된다.

> 무엇인지 모를 죄(罪)의식이 사람을 그처럼 번거롭게 해주는 모양이었다.
>
> 그에게는 아직도 한가정을 희생해가며 그남자를 획득하려는 철저한 결심이 서있지않았다. 그렇다고 김문식을 떠날수도 없다.(3회)

선영은 죄(罪)의식이라는 보수적 성향과 사랑의 존재 형식을 모색하려는 혼란의 아노미 상태를 경험하며, 유교적 도덕관과 엄숙한 성윤리 앞에서 이분법적 사고를 보여준다. 또한 한결같이 전통적인 아내의 덕목을 이상적 여성상으로 공론화하는 사회적 분위기[42] 속에서 사랑과 윤리의 갈등을 겪게 된다.

결국 『逆流속에서』의 여주인공 선영의 내적 균열은 '윤리적' 명분으로 봉합된다. 즉 선영과 문식의 만남을 <사랑>과 <인식>의 엄밀한 내적 관계로 파악할 때, Eros와 Philia[43]의 윤리 관계가 성립

---

42) 당시는 여성지 지면을 통해 아내의 덕목을 이상적으로 공론화하는 분위기가 드세었다. 이 중 과잉된 내조담론의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梁= 대개가 그렇죠 정말이 세상에 아내를 무서워 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처를 무서워 하는척 하는 것이 아름답고 생활에 좋고 … (중략) … 孫=여성은 남편한테도 자식한테도 모성(母性)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답니다. … (중략) … 孫=여자는 아무래도 남자가 자기를 꽉 쥐어주는 것을 원하거든요. 남자가 자기를 지배 안해 줄 때에 여자는 기세를 올리죠. 여자는 아무래도 지배를 원하죠." (梁柱東 · 孫素熙, 「對談: 愛妻家와 恐妻家」, 『가정생활』, 1962, 6. 7, pp. 34-37)

43) 인간에 있어서 Eros(성적사랑)는 다른 동물보다 그 개체성, 내면적인 것, 인격 등을 중요시 할 수 있으며, Eros안에서 인격의 절대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음이 인간윤리의 기본이다. 인간의 Eros는 성적상대를 찾아 부부라는 최초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성적 상대의 인격적 가치를 인정하는 윤리적 공동체의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Eros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장 작은 부부 공동체를 넘어 좀 더 큰 공동체에서 Philia의 역할이 필요하다.

된다. 선영과 문식의 사랑이 인간사회의 단초가 되어 남녀관계를 유지하는 Eros의 성립은 가능하나 Eros적인 상호관계를 넘어서 사회적 윤리법칙의 요구에 의한 Philia의 고결한 윤리적 관계[44]는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Eros는 사랑을 형성하는 원동력이며 인간적 사랑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사회적 윤리적 법칙에 의한 보다 성숙한 Philia의 작용에 의하여 비로소 <윤리적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 김문식은 어느 모로 보기나 선영과 애정관계를 맺을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신망있는 학자요 많은제자를 거느린 교육자다 그의 독실한 생활은그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다 인정하고 있었다 그같은 김교수가 하필 친구의아내되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다니 - (3회)

선영과 문식은 이성(異性)과의 Eros안에서 타인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는 상호적 사랑을 유지한다. 그러나 엄격히 말한다면 60년대의 사회통념상 이들의 만남은 바람직한 방향에로의 진행이라 할 수 없으며 선영과 문식에게는 판단의 냉정함, 결단력이 요구된다. 선영과 문식의 사랑이 보다 성숙한 Philia와의 만남으로 승화될 때 비로소 이들의 사랑이 완성된 <윤리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장덕

즉 최초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Eros이지만 Eros에 의해서는 정신적-인격적 <만남>은 불가능하다. 오직 정신적-인격적 사랑으로 규정 할 수 있는 Philia에 의해서만 정신적-인격적 <만남>이 가능하다. 사랑에는 여러 얼굴이 있다. 본고에서 규정하는 Eros는 성적사랑이며, Philia는 좀 더 넓고 성숙한 사랑이다. 이러한 Philia의 <만남>안에서 윤리적 사랑은 완성될 수 있다.

44) 이러한 제 단계의 사랑을 탐구하기 위하여 로츠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에 의존한다. 에로스라는 말은 플라톤에서 처음 사용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필리아라는 용어가 등장하여 상세하게 거론된다. 로츠에 의하면 에로스는 감각-본능적 사랑이다. 필리아는 정신-인격적 사랑이며 에로스는 필리아를 통하여 정화된다고 본다.
(J.B.Lotz 심상태 역, 『사랑의 세 단계』, 서광사, 1984, pp. 26-27)

조 애정소설의 결말 처리방식이 대체로 비극적이지만 영원한 사랑의 승화를 보여준다[45]는 장덕조 소설의 특징을 고려할 때 필리아로 승화시킨 사랑의 완성은 작가가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맺음말

이상 1960년대 장덕조의 신문연재소설『逆流속에서』를 중심으로 '사랑의 서사'와 그 저변에 작용하는 여성의식을 고찰해 보았다. 주지하다시피 1960년대는 '근대화' 혹은 '현대화'가 정치·경제·사회 문화 등에 파급력을 넓혀 나가는 시기였다. 즉 물질의 서구화와 봉건적 사고를 벗어난 발전 이데올로기가 사회 전반에 파급되어 가정과 개인의 내면에 다양한 변화를 야기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60년대 여성 소설에 등장인물은 근대화를 실현하는 주체적 인물임과 동시에 이성과 도덕적 규율에 억압되는 모순의 관계를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逆流속에서』는 이 시기 소설이 가부장적 질서를 재생산하는 여러 가지 요인과 깊게 결탁되어 있음을 잘 보여준다. 각 인물들의 사랑과 애욕의 양상들은 '열정적 사랑'의 극단을 보여주는가 하면, 불륜의 절정에서 가정의 견고한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일상으로 귀환하는 '윤리적 사랑'에 봉착하게 된다. 특히 여성들의 주체적인 의지와 각성은 '낭만적 사랑'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당대의 상황에 지배되지 않은 여성적 욕망이 일정한 방식으로 투사하여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의식을 보여준다.

60년대 낭만적 사랑은 자본주의적 근대의 윤리와 제도를 기반으로 특히 부부 간의 성을 엄격하게 규제한다.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45) 최미진,「1950년대 장덕조 소설에 나타난 연애와 결혼 - <多情도 病이련가를 중심으로>」,『現代文學理論硏究』37, 2009, p. 145.

완고함은 서서히 위축되며 남성 섹슈얼리티의 상황은 약화되었다. 가정을 위협하는 '축첩'이나 '외도'의 문제에 대한 부정성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 관여하는가 하면, 여성 잡지나 각종 매체를 통하여 '문제'로 인식하며 경종을 울렸다.

따라서 주인공들에게 전개되는 낭만적 사랑의 내부는 사회적 시선과 밀착되어 은밀과 저항이라는 전략을 통해 '密會'의 방식을 모색하게 된다. 이는 도덕적 순결과 정조를 강조하던 60년대의 풍습과 맞물려 '집 밖'을 나온 여성 주인공에게 외부의 질타와 억압적 시선을 피해 갈 수 없게 만든다. 결국 주인공들의 욕망과 배리되는 제도와 윤리는 『逆流』와 조우함으로써 가부장적인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逆流속에서』는 남성 중심적인 근대의 제도와 윤리에서 일탈된 여성의 욕망들이 제기되며 작품전체를 윤리적으로 통제하는 작가의 가치관이 면밀히 나타난다. 이는 대중의 기호나 취향에 부응하는 나름의 가치관과 아울러 근저에 작용하는 작가의 편파적 시각이 여전히 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들어 여성작가에 대한 작품연구가 활발해지고 새로운 의미로 복원되고 있으나 장덕조는 연구의 중심에서 다소 벗어나 있었다. 이에 본고는 그간 사각지대에서 불구상태로 외면된 장덕조의 신문연재소설 『逆流속에서』를 찾아 진지하게 탐구함으로써, 작품을 통해 자본주의 근대에 구현된 '사랑의 서사'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근대화 과정에서 배태된 여성의 주체적 경험과 욕망, 당대의 윤리의식을 밀도 있게 모색하는 유용한 작업의 시작이라 할 수 있으며, 장덕조 작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긴밀한 연구는 후속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1) 신문소설
장덕조,「逆流속에서」,《大邱每日新聞》, 1960. 5. 11～12. 31(1회～225회).
_____,《大邱每日新聞》, 1960년 5월 9일자, 作者의 말.

2) 잡지, 신문
梁柱東・孫素熙,「對談: 愛妻家와 恐妻家」,《가정생활》, 1962, 6. 7, pp. 34-37.
趙容萬,「우리 女性의 아름다움」,《가정생활》, 1962. 7, pp. 16-17.
張德順,「傑人이기 전에 먼저 女性이어야」,《여상》, 1963, 1, p. 125
《동아일보》, 1962, 8. 15.
《보건 타임즈》, 2010, 7. 28.
《여원》, 1955, 10. 10.
《조선일보》, 2003. 2. 18.

2. 논문

남금희,「1950년대 장덕조 신문소설연구-『대구매일신문』을 중심으로」,『현대소설연구』20, 2003, p. 316.
송인화,「1960년대 연애서사와 여성주체 - 정연희 <석녀>를 중심으로」,『한국문예비평연구』25, 2008.4, p. 168.
_____,「1960년대 여성소설과 '낭만적 사랑의 의미」,『여성문학연구』12, 한국문학여성학회, 2004, 6. 참조
조 리,「장덕조 소설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2007, p. 87.
최미진,「1950년대 장덕조 소설에 나타난 연애와 결혼 - <多情도 病이련가를중심으로>」,『現代文學理論研究』37, 2009, p. 145.
차희정,「해방기 장덕조 소설에 나타난 여성성의 위장과 전유 - 잡

지 게재 소설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35, 2012.

3. 단행본

김동윤,『신문소설의 재조명』, 예림기획, 2001, pp. 121-123 참조.
김양선,「일제 말기 여성작가들의 친일담론 연구」,『한국 근·현대 여성문학 장의 형성』, 2012, 소명출판, pp. 102-105 참조.
강진호,『현대소설사와 근대성의 아포리아』, 소명출판, 2004, p. 45.
김병익,『한국문단사』, 일지사, 1973, p. 204.
김영덕,「현대여류작가론」, 서정주 외 5인 편저,『현대작가론』, 형설출판사, 1979, p. 424.
미셸 푸코, 이규혁 역,「앎의 의지」,『性의 歷史』, 나남, 1993, p. 44.
서영채,『사랑의 문법』, 민음사, 2004, pp. 15-16.
이강언·조두섭,「여성의 본능과 비극적 사랑」,『대구·경북 근대문인 연구』, 태학사, 1999, p. 312.
임옥희 외,『페미니즘과 정신분석』,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이연, 2003, p. 103.
조혜정,『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1988, p. 19.
제크린 살스비, 박찬길 옮김,『낭만적 사랑과 사회』, 민음사, 1985, pp. 223-239 참조
최미진,『1960년대 대중소설의 서사전략 연구』, 푸른사상사, 2006, pp. 45-46.
엔소니 기든스, 배은경·황정미 역,『현대 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새물결, 2000, pp. 14-16 참조.
한원영,『한국현대신문연재소설연구』하, 국학자료원, 1999, pp. 1185-1259.
한국문학연구회,『페미니즘과 소설비평』현대편, 한길사, 1997, pp. 21 -22.
Niklas Luhmann, 정성훈 외 역,『열정으로서의 사랑』, 새물결, 2009, pp. 50-57 참조.

A Study on 'Narration of Love' in Deokjo Jang's Novel

- Focused on "*Amid Back Flow*" -

Kim, Yoon-Suh

The thesis recognized that major subject matter of the serial story in a newspapaer in the 1960's was 'Love' and the researcher searched for "*Amid back flow*" of Deokjo Jang that had been disregarded in the state of disability at a dead zone and investigated the 'Narration of Love' that was realized in a capitalistic period through a literary work. This discussion could be a very helpful work in finding independent experience and desire of a woman born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and the sense of ethics of that time in depth.

Deokjo Jang was a female writer from a rural area and started to publish her works after entering *Gaebyeok* in 1932 and becoming a newspaper journalist. Her creative activity was more emphasized than other female writers through most of newspaper and magazines of 1930's and her status as a popular writer was established between 1950' and 1960's. Despite the popularity, she was left out and isolated from Korean history of literature.

In "*Amid back flow*", Deokjo Jang supported the modern awakening of the female in early 1960's and criticized the snobbery of capitalism and the feudal customs. While the love relationship between a man and a woman was highlighted as a special one, sexuality of characters who were seeking for a new identity was demonstrated as a 'deviant love' along with an extramarital relationship in 1960's. One type of love types, 'Romantic Relationship' was proceeded during a process of the self-awareness by looking at each character's desire and reality in "*Amid back flow*". The important subject to find the value of a novel of Dekjo Jang is the investigation of 'Ethics'. This ethical awareness of the writer was much implied in "*Amid back flow*" and 'Domestic' ideology was represented as a standard of conformity. 'Romantic

Love' consisting of departure from home and the return could be truly completed when 'Philia' relationship of their love is formed beyond 'Eros'. This corresponded with the entertainment issue in the 1960's when social/ cultural/political atmosphere required the 'refinement' of female. Therefore, "*Amid back flow*" shows the writer consciousness that resisted against the current of unstable society through the 'Sense of Ethics' on the basis as well as the aesthetic attribute of popular literature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s preference through 'Narration of Love'.

Key words: Back flow, Finding Identity, Deviant Love, Identification of Subject, Romantic Love, Eros, Philia, Ethical Love

김윤서
소속: 경일대학교 강사
주소: (706-940)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 시지태왕하이츠 104동 501호
전화번호: 010-8563-1110
전자우편: agape@ynu.ac.kr

이 논문은 2013년 11월 04일 투고하여
2013년 12월 0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12월 31일 게재 확정함.